

빛은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는 자체로 없다.

나의 원형들

原 型

KIM CHUL

나의 원형들

原型

목차

	서문	3
01	야곱 유형 신神의 나라	8
02	다윗 유형 신神의 마음	12
03	솔로몬 유형 신神의 지혜	20
04	요한 유형 신神의 총애	29

서문

빛, 물체, 그림자.

빛은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는 자체로 없다.

물체는 실제 존재로 있다.

물체는 해시계 막대처럼 그림자 시침이 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옛 지혜 있는 자들이 셋의 관계를 관찰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하늘을 보는 대신 고개를 숙여 하루의 때를 가늠할 수 있는 기구를 발명해 낸 것이다. 여하튼 그림자로서의 시간.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 결합의 단어이다. 중세 국어 표현으로 그림은 모양, 형상을 가리키는 고유어이었다. ‘자’는 모+자의 경우와 같이 접미사이다. 그림자는 빛에 의한 물체의 어두운 형체이다.

光 → 體 → 影

인류에게는 원형原型archetype¹들이 있고 인간은 그것들을 지니고 산다. 한국인에게는 한민족 조상들의 기질과 성향과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원형들이 있고, 일본인에게는 그네들만의.

인간은 인류종이라는 보편성의 원형들이 있다. 나에게도 원형들로서의 성질性質, 성미性味, 성향性向, 성정性情이 있을 것이다.

원형의 영단어 Archetype은 그리스어 arkhetupon에서 유래되었다. 아르케ἀρχή(처음, 시작, 근원)와 티포스τύπος(형태, 모양, 인상, 틀)가 합쳐진 단어이다. 처음 찍힌 형태, 최초의 모형이라는 의미이다(the first form from which copies or variants are made).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편견prejudice이나 선입견, 혹은 관상학이나 골상학 같은 가짜 과학pseudoscience과는 시작부터가 다른 접근이다. 운명결정론이나 점성술 같은 잡학雜學, 잡기雜技와도 방향을 달리한다.

1 원형原型: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갖추어져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심상心像.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설화, 신화, 문학 등의 주제나 모티프에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그럼에도 과거는 불가변적不可變的이고 불가촉不可觸 untouchable이다. 운명도, 그 어떤 우주적 힘도 건드릴 수 없다. 대자연, 행성들, 거대 우주는 생성소멸하며 언제나 변화한다.

과거는 이상하리만큼 견고하고 고정적이다. 지나간 것, 끝난 것, 그러나 현재에도 영향하는 바가 있는 원형적 면모가 그곳에 있다. 지질층처럼, DNA처럼. 신화들처럼, 역사처럼.

현재-현실이라는 빛,
나라는 현존-물체,
빛에 의해 드리워지는 형태-원형 그림자.

심리학자들에게 보이는 개인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다. 좌우가 바뀌더라도 거울이 있어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림자는 나의 원형들의 선들lines, 윤곽silhouette, 굴곡undulation, 특성terrain을 나의 형태shape로 드러내 준다. 그림자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곳에만 있는 귀신같은 사람뿐이다.

원형들의 흔적은 그림자로 반드시 표출된다.

‘나폴리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틀림없이 악당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다.’ 운명은 동물성과 용기를 잃지 않은 개인이 저항하고, 길들이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에머슨의 인용문이다.

모순어법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성품, 성향, 성질, 성정은 가계家系를 통해 쥐어진 고유한 악보, 삶은 다양한 음표들이 된다는 설명으로 인용문과의 균형을 잡아 준다.

나는 나의 원형을 파악하고 또한 그것이 드러나 있음을 인정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림자들의 실체는 나임을 알고 그들과 작용-반작용하며 내 삶을 창조할 것이다.

나의 원형을 풍성하고 다양한 유대민족의 서사敍事narrative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네 가지 유형으로 자가自家 분석分析해 본다.

야곱 유형

신神의 나라

Jacob Archetype

다윗 유형

신神의 마음

David Archetype

솔로몬 유형

신神의 지혜

Solomon Archetype

요한 유형

신神의 총애

John the Apostle Archetype

야곱 유형

Jacob Archetype

신神의 나라

Ⅰ 원형

속이는 자	<i>trickster</i>
범법자	<i>law/rule breaker</i>
입국금지자	<i>inadmissible</i>
목표성취자	<i>goal-achiever</i>
여성적 성향자	<i>womanishness</i>
낭만적 성향자	<i>romanticist</i>
내향적 인내	<i>introversive endurance</i>
운명 정복자	<i>fortitude in fortune</i>

II 주요 사건

- 장남인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가업을 어기고 장자권을 가로챈.
-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감.
- 내향적인 사람으로 집에 있기를 좋아함. 생각과 가사노동의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음.
- 야비한 성품의 외삼촌 라반과의 속고 속이는 오랜 고된 인생.
- 곱고 아리따운 라헬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14년의 기다림과 노동(외삼촌 라반의 계략과 약속 파기).
- 인생 후반, 야곱(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됨 (사라^{סָרָא}: 겨루다, 다투다 · 엘^{אֱלֹהִים}: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중 허벅지 관절을 다치고 그 후 평생 절뚝거리게 됨. 육체적 장애를 갖게 됐지만 조화와 평화의 내면을 지닌 사람이 됨.

III 나의 원형, 성정性情 실루엣silhouette

- 지혜와 전략적 사고. 성취 본능이 강함.
- 거짓, 조작, 속임수(부정적 성질)로 자초한 역경들.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집요하게 목표를 추구.
- 여자 같음womanlikeness이 아닌 여성스러움 womanliness과 집안 중심, 가사 일을 돌보는 성향,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 내향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는 훗날 야곱이 신의 나라 곧 이스라엘로 세워질 때 사용된 주요 기반 성분들이 됨.
- 폴리가미polygamy(poly: 많은, 다수 · gamy: 결혼, 혼인)로 인한 가정 내 문제들(속임, 계산, 질투, 눈물, 상처), 그러나 야곱의 사랑, 희생, 인내, 은총이 문제들을 요리 cook하며 프롤리피커시prolificacy(pro: 많이, 내보내는 · lific, 라틴어 facere: 만들다, 생산하다 · 많이 생산하는 상태, 다산성, 풍요로움, 창조성)의 삶을 실현.
- 이스라엘로 변한 뒤에는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삶을 통해 개인에서 신의 나라의 원형으로 성형成形이 됨.

- 자신이 속여 장자권을 뺏긴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 20여 년 타향살이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온갖 속임수와 계략에 고생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며 삶의 일가一家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사백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온 형 에서는 놀랍게도 야곱에게 달려와 껴안고, 목을 안고, 입 맞추며 함께 울며 화해. 각자의 길을 감.

다윗 유형

David Archetype

신神의 마음

Ⅰ 원형

여성 편력 ² 자	<i>women-rover</i>
낭만적 연인	<i>romantic lover</i>
예술가	<i>artist</i>
호전적 전사	<i>belligerent warrior</i>
망명자	<i>fugitive</i>
영웅적 리더	<i>heroic leader</i>

2 편력²자: ① 여러 경험을 함. ② 널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님. travel, tour, pilgrimage, roving.

욕망인

adulterer & killer

경배자

worshipper

II 주요 사건

- 종교-정치 리더였던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 새 왕을 선택하려 했다. 다윗은 막내로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고 일곱 형들이 소개되었다. 사무엘은 전부 ‘그가 아니다’라고 했고, 결국 다윗을 불러 왕으로 결정. 기름을 부음. 중심이 기준.
- 40일 동안 조롱받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 들판에서 죽였던 짐승들처럼 골리앗을 죽이고 오겠다고 분노함. 소년 목동이 적국 수장 골리앗을 평소 자신의 무기, 물맷돌로 쓰러트려 죽음.
- 이후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어린 다윗을 더 칭송하고 칭찬하게 되자 사울 왕은 몇 번의 살해 시도 끝에 다윗을 놓치게 됨. 그 후 다윗은 오랜 기간 광야에서 무리들과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됨. 광야인.
- 광야에서 무리를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다윗과 그 무리는 그 주위 재력가들의 일을 도와주고 식량과 쓸

것들을 제공받았다. 나발(어리석은 자)이라는 부유한 자에게 양털 깎는 절기에 부하들을 보내 평화롭게 양식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평소 나발의 양 떼들을 지켜 주었음. 이름의 뜻도 그리하지만 부유하나 어리석고 성격이 거친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그 아버지는 누구냐 모욕하며 쫓아 보냈다. 다윗이 크게 분노하여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갔다. 나발에게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집안의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먹을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 그 앞에 엎드려 대신 사과를 하고 어리석은 자로 피를 불 필요가 없으며 후에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분노를 거두라고 설득. 이에 다윗은 크게 감동하여 신께 찬미하고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피를 보지 않고 돌아감.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술에 취해 있던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심장이 멎어 사망.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음.

- 자신의 군사 우리아라는 이의 아내 밋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탐하게 됨. 결국 밋세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고 우리아는 최전선에 배치해 죽음에 이르게 함.
-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겸허히 듣고 회개함. 그러나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출생한 지 7일 만에 죽음. 이에 다윗은 바닥에 엎드려 슬피했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 몸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갖춰 입은 후 성전으로 들어가 경배함. 끝난 일.

-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
אִישׁ כְּלִבּוֹ (이쉬: 남자 · 키: ~에 따른 · 레바브: 마음, 내면 · 오: 그의, 신神의). 거대한 사건과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그의 치명적인 인격적 흠결에도 성경의 이야기 어디에도, 어떤 이에게도 언급된 바 없는 인간에 대한 유일한 평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같이 신은 변명 없는 즉각적인 뉘우침과 진심의 회개, 신을 향한 깊고 견고한 신뢰,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열정적인 경배,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감당했던 아름다운 영혼, 자신을 죽이려 하고 곤경의 때 모욕과 저주를 하는 이들을 신께 맡기고 제 길을 가는 겸손과 온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 인간들로부터 찾고 원하는 제사, 곧 상한 심령의 사람. 이것들이 바로 신의 마음.

III 나의 원형, 성정性情 실루엣silhouette

뮤즈³ 편력성.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 후로 7명의 아내를 더 맞이했다. 당시 관습, 정치적 동맹이 결혼의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비가일과 밋세바와 그 외의 기록되지 않은 후궁들 중 일부는 다윗의 몸과 마음, 그의 삶에 활기와 생력을 불어넣어 주는 inspiration(영감 · 라틴어 in: 안으로 · spirare: 숨 쉬다, 호흡하다 · 안으로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줌 · 중세 라틴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뮤즈the Muses들이었다. 다윗은 분명 여성 편력성이 있는 남성rover이었다. 용기, 결단력, 호전성, 카리스마라는 그의 강력한 남성성은 그의 뮤즈들muses과 하나됨을 통해 담금질temper⁴되고 숙고muse⁵되었다.

산불 → 발전소의 불

일상적 예술 활동.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으로 괴로워할 때 수금을 연주해 도움을 주었다. 기록에 의하면 수금을 연주할 때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한다. 성직자 그룹인

3 뮤즈Muse: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과 시, 창작과 학문에 영감inspiration을 주는 여신들.

4 temper: 명사로는 성질, 성미, 율화통, 화, 분, 기분. 동사로는 풀무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쇠를 물에 담금질하다.

5 muse: 명상하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유념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리스 신화의 여신 뮤즈와 동일 철자.

래위 족속들 중 음악적 재능이 있는 이들을 선발해 오케스트라와 콰이어를 조직했다. 개인적인 심회心懷⁶를 시와 노래로 만들어 표현했다. 시편에 실려 있는 150편 중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와 노래라고 알려져 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언어에 능통한 남자이었다. 언약궐가 돌아올 때, 다윗은 자신의 종교적 감흥을 이기지 못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옷이 벗겨질 정도였는데, 이를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남편이 돌아왔을 때, 한껏 잔소리를 해 주었다. 어떻게 그 지경으로 권위와 체통 없이 처신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때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라고 답했다. 그의 삶은 정치적 성공보다 예배가 늘 그와 함께 있는 삶.

죄와 벌레. ‘나는 벌레nyʔin⁷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백성들은 나를 조롱거리 삼아 즐거워합니다 (시 22:6).’ 다윗은 큰 죄들을 짓고, 그 슬픔과 아픔을 죄책으로 겪었던 의인하고는 거리가 먼 삶의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죄의 때에 하나님께 즉시 돌아와 그 은총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다. 죄는 죄를 지은 인간을 죄를 아직 짓지 않은 혹은 지을 용기가 없는 아니면 아예 에너지도 없는 자들에게 벌레와 같은, 인간 같지

6 심회心懷: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7 히브리어 ‘벌레’. 발음은 톨라아트.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

않은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러나 죄와 죄과⁸가 사람들과 백성들 쪽에서라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시 8:5),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히 2:7)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다윗 쪽의 것이다.

인생관the perspective of life. 다윗은 숙고와 묵상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고 이 땅에서의 권세는 덧없는 것임을 자신의 마음판에 깊이 선명히 새겨 넣었다. ‘주여, 내 종말과 내 생명의 기한을 알려 주시어 나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소서(시 39:4-5).’ 종교나 교리, 이론과 이념을 떠나서, 이러한 인생관의 소유자는 자신의 유한한 삶을 고유하게 일구며 살 수 있다.

보는 바대로 보이는 것이다. 보는 바는 인생관이다. 사람마다 다르고, 보는 바가 없는 이들조차 있다. 보이는 것은 그 인생관 소유자의 삶터요, 향유하는 일상이다.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 있는 날을 계수計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장자莊子의 마음과 서로 어울림이 있다.

8 죄과罪過: 죄와 허물을 한데 이르는 말.

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隙 忽然而已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인데, 이는 마치
빛 한 줄기 들어오는 부엌문 틈 사이로 보이는 밝을 천리마가
지나가는 듯하니,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와 직조, 예술과 전쟁의 여신
미네르바를 보면 인간이 깨우쳐 얻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주어진 명命 속에서 일상이라는 낯설과
씨실로 자신의 성정에서 나온 싶음을 직조하여 무늬와 결로
나타내는 예술로의 삶, 그리고 이 삶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싸우며 쟁취하며 건디며 물리치는 자세와 능력.

솔로몬 유형

Solomon Archetype

신神의 지혜

Ⅰ 원형

현자賢者 ⁹	<i>sage</i>
건축자	<i>architect</i>
태평성대 치리자	<i>the ruler of peaceful reign</i>
부와 권력 소유자	<i>a power & wealth holder</i>
쾌락주의자 ¹⁰	<i>hedonist</i>

9 현명한 사람. sage의 어원은 라틴어 sapere: 맛보다, 분별하다. 몸소 경험함으로써 체현體現, 체득體得.

10 쾌락의, 향락적인 hedonic: 달콤한, 기분 좋은. 맛보는 것, 몸소 경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신이 사랑하는 자	<i>God-loved person</i>
다윗과 밋세바의 아들	<i>child of adultery</i>
영적 통찰력의 작가	<i>writer of insight</i>
타문화 네오필리아 ¹¹	<i>foreign culture neophilic</i>
타락자 ¹² & 완성된 인간 ¹³	<i>a degenerate</i>

II 주요 사건

- 다윗과 밋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 간통과 살인 그리고 그 원인이었던 그 둘 간의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 출생한 이스라엘 3대 왕. 신의 선물, 신의 지혜라고 하는 충기와 지성을 소유했던 인물. 한 아기를 두고 누가 친모인지 판결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음.
- 솔로몬은 죄과를 물려받은 채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신으로부터의 더 혹독한 운명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神是愛.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11 neo: 새로운 · philiac: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새롭고 특이한 것에 열정적인 사람.

12 성경과 탈무드의 기록의 평가. 기독교 외부 전승, 즉 유대교 전승, 이슬람 전승, 신비주의 전승에는 지혜로운 왕, 신비적 마술사, 영적 존재를 다스리는 자, 세계 왕조의 시조 등으로 평가.

13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인 수피즘의 기록. 솔로몬은 완전한 인간insān al-kāmil의 전형典型.

등장한다. 여디디아^{יְדִידְיָ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허락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그 뜻은 ‘여호와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 ‘다윗이 그의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삼하 12:24-25).’

-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건축을 풍성한 자본과 다양한 나라에서 가져온 최상품 자재들 그리고 앞선 건축 기술로 성취한 건축가로서의 왕. 왕권의 과시와 강제 노역이라는 당시 주변국과 백성들의 평가도 있음. 처음 성전 완공 시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으로 드리워 신이 현존하는 곳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우상들의 제기와 제사가 있는 곳이 되어 갔음. 바벨론 침공 때 파괴됨. 종교 건축물은 신의 좌소坐所가 아님.
- 솔로몬의 재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적 번영과 부요함이었다.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온 금 수입만 666달란트, 대략 현재의 무게로 치환하면 약 22톤 규모가 된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하지 않은 것이 되어 돌처럼 여겨졌다(왕상 10:21).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궤를 같이하는데 이는 신이 그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겠다고 한 약속(왕상 3장)의 성취라고 볼 때 그러하다.

— 솔로몬 자신의 고백들이다.

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 2:1)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전 2:4-5)

은금과 왕들이 귀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각종
보물과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전 2:8)

무릇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였음이라 (전 2:10)

남다른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 곧 현자sage의 영어 유래가
‘직접 맛보아 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쾌락주의자
hedonist의 hedonic(쾌락적, 향락적)의 뿌리가 ‘달콤한,
달콤하여 기분 좋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고장마다 한 명씩 있는 동네 철학가나 지혜자들 말고 솔로몬 수준의 출중出衆한 현자 왕a sage-king은 몸소 체험하는 것과 즐기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과 가치가 있다 여겨지는 문화 예술에 대한 특별한 감각과 갈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세 가지 정도의 기본선들의 삼각 구조 안에서 자신의 희소·희귀 능력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 1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 2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 3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 (신 17:16-17)

솔로몬은 이 ‘일상 구조 설계’가 없었음. 그의 부요함이 자연스럽게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이어짐. 이방 공주들이 그를 흠모하고 연모함. 그들을 데리고 와 혼인함. 반면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위한 산당을 건축(왕상 11장). 결과적으로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부과, 왕국 분열의 씨앗이 됨(왕상 12장).

- 영적 통찰과 성찰의 작가로서 지혜서¹⁴라고 명명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저술함.

14 Wisdom Literature. 모두 삶의 의미, 인간 존재, 사랑, 올바른 길을 탐구. 장르는 각기 다름: 짧은 교훈(잠언), 철학적 고백(전도서), 시적 사랑(아가서). 삶의 지혜라는 공통된 축.

III 나의 원형, 성정性情 실루엣silhouette

미시간에 있는 나의 모교 Hope College, Holland, MI. 책들 속 책벌레 생활이었지만, 힘 키우는 스콜라 훈련장이었다. 프로페서 비피. 누구나 이렇게 불렀다. Dr. Steve Bouma-Prediger. 교수라도 학생들이 주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분에게는 스티브라 하지 않고 와이프 성과 합친 부마-프레디거, 그걸 줄여 Prof. BP 이렇게 불렀다.

때때로 교정을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곤 했다. 1년 정도 교제한 후, 산책 중에 그분은 나에 대한 분명한 사실 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도 되냐고 물었다. ‘Sure!’ 첫 번째, 130년 개교 이래 유일하게 한국에서 온 학생이다. 도전과 용기가 대단하다. 두 번째, 지혜를 찾고 구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내 에세이와 페이퍼들에서 그리고 나와 의 대화를 통해 미량이지만 배어 나오는 성분들을 통해.

지혜는 지식을 섭취하고 소화해 운동하는 능력이다. 힘이고 에너지이다. 불씨에 산소가 공급되어 불이 붙어 타고 있는 상태wisdom이다. 지혜는 도리, 도덕, 도의라 할 수 있는 덕에 대한 자각과 준행이 아니다. 지혜는 길도를 찾고, 길을 내고, 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구도求道이고, 창도創道이고, 주도走道이다. 아는 것을 맛보려 찾고, 맛보아 알게 된 것을

재료로 수정, 개선해서 새로운 바를 창조하고, 이러한 작업을 일상의 삶으로 체질화시켜 반복하고, 변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지혜의 실제 모습이다. 프롭 비피Prof. BP의 실제 모습이다.

여디디야Yedidyah. 신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무이한 별칭을 신으로부터 받았는데, 솔로몬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언약과 예언 형식의 이름을 얻었다. 다른 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없을 여디디야라는 아름다운 이름. 도덕, 도의, 도리의 기준 곧 법과 상식의 잣대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도 무효화해야 하는 자들의 아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총의 신적 계약서가 제공된 것이다.

나는 멀리 멀리 왔다. 달리 달리 산다. 큰 상처를 주고, 기대와 기준을 저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더 이상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이런 자에게도 이름이 있다. 여디디야. 물론 솔로몬의 별칭이다. 그러나 이 땅,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나의 개명된 이름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칭하는 것인가? 아니다.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이 은혜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딤후 1:9).’ 나는 ‘그 우리’ 안에 있다. 심판 후에도 은혜와 사랑은 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연주가였다. 솔로몬은 사색가이었고 작가였다. 관조와 탐구, 숙고와 성찰을 일상으로 하는 통찰력 있는 작가였다. 저자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생각의 산물이다. 잠언을 통해 자신의 사는 방식을, 전도서를 통해 자기 존재의 길이와 높이를, 아가서를 통해 자신의 최고의 지혜인 사랑의 가사와 곡조를 악보로 기록해 놓았다.

나는 인간은 은혜로 인해 그 존재가 깊고 풍성하게 된다고 파악했기에 인간의 영적 명칭을 호모 그라티아Homo Gratia라고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글로 쓰고 출판을 했다. 캐나다 개인 조종사 자격증Canadian Private Pilot Licence 소지자이기에 그 오래고 고됐던 훈련 과정을 인생에 비유해 글로 썼고 책으로 냈다. 책 제목은 『인생 조종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순도 100의 진리를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궁리해 보고 세상과 나를 살펴보고 해서 나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글로 남겼다. 사랑은~이다. 책 타이틀은 『사랑은이』로 했다. 모두 30대 초에 쓴 책들이고 20년이 지난 지금, 몇 주 전에 나의 일상의 중심성에 대한 십여 년간의 집요한 심리

실험, 생활 실험, 관계 실험, 결과물 파악을 통해 정리한 생각을 작은 책에 담아냈다. 그리고 7년 정도 직관과 고민과 궁리와 시도들 끝에 앞으로 시대 속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나만의 실행 가능한 삶 구조 설계도를 글로 풀어 기록화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나의 원형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묻고 있다. 나를 알아가는 여정journey이 인간 삶의 의미라고 한다면 요즈음 하루하루au jour le jour가 바로 저니Journey¹⁵이다.

15 journey의 원래 뜻은 여정, 여행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시간,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길을 뜻했음.

요한 유형

John the Apostle Archetype

신神의 총애

Ⅰ 원형

성격 전환자	<i>trans-temper</i>
심도 지향자	<i>depth-oriented relation</i>
형이상학적 사고가	<i>metaphysical thinker</i>
연모자	<i>romantic admirer</i>
헌신과 충절의 사람	<i>dedicated & loyal person</i>
신비가	<i>mystic</i>
이관異觀적 저술가	
사랑의 사람	<i>man of love</i>

II 주요 사건

- 형제는 용감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였다. 그의 스승 예수가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들Boanerges’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만큼 의분이 강했고 성미가 불같은 성향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 기도하여 저들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겠다고 성을 내며 분을 참지 못했다. 이처럼 천둥 치듯 격렬하고 폭발적인 감정의 소유자였다. 천둥 같은 사람, 요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니는 동거함의 일상을 통해 사랑의 사람, 요한으로 변모한다. 그의 저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 볼 때 그는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뜨거운 성질이 풀무질, 망치질, 담금질되어 깊고 부드러운 사랑의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神是愛God is love라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 전체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요일 4:8).
-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을 정도로 예수와의 관계가 타 제자들과의 그것과는 비교 불가한 깊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앉았는지라(요 13:23).’ 연모가의 모습.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요한은 예수와 함께했다. 십자가 위에서 평소 사랑하고 신뢰했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한다. 예수에게 요한은 헌신과 충절의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 19:26-27).’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보관한 돌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다. 이때의 기록에도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임이 언급된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예수와 친밀하고 밀접한 이가 바로 요한이었다.

-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四福音書 Four Gospels라고 한다. 모두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다. 예수가 신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은 대상 독자가 유대인들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그리스인들, 요한복음은 제諸 기독교 공동체원들이다. 여기서 마태(세리tax collector), 마가(베드로의 제자), 누가(의사, 바울의 선교 파트너)의 기록을 공관복음서 共觀福音書라고 한다. 영어로 Synoptics(syn: 함께 · optic: 보다)라고 하는데 같은 관

점으로 사건을 보고 기록했다는 뜻이다. 마태가 쓴 글과 마가의 글, 누가의 기록은 함께 놓고 비교하며 맞춰 보는 것이 가능한 비슷한 내용과 구조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관점이 다르다 異觀.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로고스logos라고 본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logos이 계시니라’로 시작한다.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로고스λόγος¹⁶는 이치이며 원리이다. 요한은 영원부터 창조주와 함께 있는 창조의 원리가 곧 예수 자신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기원전 6세기)는 로고스λόγος를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는 합리적 원리라고 파악했다. 만물은 변화하지만, 그 안에 보편적 법칙인 로고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 Stoics은 로고스를 세계 이성을 관통하는 불멸의 원리로 이해했다. 만물 속에 스며든 신적 합리성divine reason permeating the cosmos이라는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 종servant으로 오신 메시아, 완전한 인간 즉 인자人子Son of Man로 표현했다. 반면 요한은 예수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게 한다.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 에고 에이미 생명의

16 그리스어 원래의 의미. 1. 말, 언어speech, word, discourse 2. 이성, 이치reason, rationality 3. 원리, 법칙principle, ground.

떡,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에고 에이미 양의 문,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 에고 에이미 부활이요 생명, 에고 에이미 길이요 진리, 에고 에이미 참 포도나무. 그리고 ‘나는 그이다. 내가 바로 그이다.’ 다른 붙는 말 없고,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에 신의 자기 선언, ‘나는 내가 되는 자다. 나는 곧 나이다. $\text{אֶהְיֶה אֲשֶׁר אֶהְיֶה}$ (Ehyeh Asher Ehyeh).’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유대의 전통과 관점보다는 그리스 철학의 이해와 용어이다. ‘빛과 어두움’도 요한만의 표현이다. 요한은 설명은 철학-상징-비유적으로 했고 선언은 단순-명료-직설적으로 하는 이관적異觀的 저술가였다.

- 요한의 메시지는 사랑과 영적, 신비적 연합이 주제이다. 사랑 타령 그리고 결국 교합¹⁷이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랑으로 살다 갔다. 사상과 메시지, 저술과 연설, 가르침과 대화의 주제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 자신이 그러한 성정을 지닌 인간이 되어 일상을 채워 갔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열두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도였다. 에베소,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말년에 교회를 돌보며 살았고, 장수하여 90세를 넘겼다는 기록도 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AD 81-96) 때 박해를 받아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이곳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고 요한계

17 교합交合: 1.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관계함. 서로의 다양한 신체 부위를 이용 2. 뜻이나 마음이 서로 맞음 3.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이 어울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록을 기록했다. 교부들¹⁸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말년에 ‘사랑하라’는 메시지만 계속 전했다. 너무 연로하여 가르침을 길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애들아, 서로 사랑하라My little children, love one another’라는 짧은 권면만 반복했다고 한다. 제자들이 이유를 물을 때면,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며 이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젊을 때 요한은 스승 예수에게 우리의 아들(천둥 같은 성미)이라고 불렸고, 그 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예수와 마음과 영혼이 하나됨을 경험했다. 그 결실로 노년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해 ‘사랑과 하나됨’만을 강조하는 사랑이 되어 살았다.

III 나의 원형, 성정性情 실루엣silhouette

세계 주요 종교들 중 기독교에서만큼 명상meditation을 비정통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묵상meditation in Christian tradition은 율법과 신이 중심이다.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18 교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 에베소의 폴리크라테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성령과의 교통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반면 명상冥想 meditation in Eastern or modern sense은 개인 내면의 고요, 자아 초월, 의식의 각성과 관련이 깊다.

나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묵상은 사색과 숙고 형식의 명상이고, 명상은 무위無爲와 무아無我 상태의 묵상이다. 묵상을 통해서 뜻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행위를 성찰한다. 명상을 함으로 뜻과 의미, 선과 악, 집착과 애착을 모두 버린다. 존재로 족하다. 묵상을 통해 거울을 보듯 자신을 보며 얼굴과 옷매무새를 고친다. 명상을 통해 강 건너가듯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이편에 둔 채 저편으로 간다. 묵상과 명상, 이 둘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이나 나의 세상에 대한 인식, 행동과 가치를 변화시킨다. 정작 중요한 것과 실제 가치 있는 것과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나의 삶을 찾는다. 자기 변혁자self-transformer가 된다.

고치도 알도 모두 한때의 나라 할 수 있는 나의 모습과 상태. 나비가 되어 새가 되어 공간을 나뉨¹⁹. 알이 애벌레로, 애벌레가 번데기로,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전혀 새로운 존재 나비로. 알 속 형체 흐물한 배아embryo가 알을 깨고 나와 곧 날아오를 새로. 우레와 같은 성깔의 소유자 요한이 사랑과 사랑만을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은 완전

19 나뉨다: 새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다.

변태holometabolism²⁰이다.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에서 성충. 유충과 성충, 애벌레와 나비는 모습도, 섭생도, 사는 곳도 모두 전혀 다르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만(묵상과 명상) 나비가 된다. 나 역시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지금까지, 모습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산 곳도, 먹고 지내는 일상의 내용도 모두 같지 않다. 알 같고, 애벌레 같고, 고치 안에 갇힌 듯 번데기로 있고, 나비가 된 듯 나날기도 했다. 완전변태를 통해 자기 변화자self-transformer로 살아왔다.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의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이관자異觀者nonconformist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사전 식으로 풀어 보자면, 사회적 규범이나 다수의 기대에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유대인이기에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정서에 맞추었던 마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익숙했던 문체와 표현을 썼던 마가, 철학적 사고와 신화적 생활관의 그리스인들에게 적합한 진행과 단어들을 선택했던 누가. 모두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었고 그 조절은 적절했다.

20 곤충이 발달 과정에서 알egg → 유충larva → 번데기pupa → 성충adult의 단계를 거치는 형태. 각 발달 단계는 형태, 생리, 먹이 습성이 뚜렷하게 달라서 단계별로 생태적 역할이 분리됨. 나비는 대표적인 완전변태 곤충으로, 유충(애벌레) 시기에는 먹고 자라는 데 집중하고, 성충(나비)은 번식과 이동에 집중함.

그러나 요한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좋은 소식 곧 복음서 넷 중에 속하면서도 관점을 공유共有하지 않았다. 이관異觀복음서이다. 자신만의 형이상학적 이해(로고스), 빛과 그림자와 같은 상징적 표현들, 영적인 해석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는 노력들, 요한만 사용했던 ‘나는 ~이다’라는 자기 선언적 문법,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진실로 진실로 ἀμὴν ἀμὴν 아멘 아멘’ 강한 확증을 위한 관용어idiom²¹ 사용, 타 복음서에서 모두 사랑ἀγάπη(agápē)은 율법과 계명의 요약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의미했고 그 빈도나 강조가 약하다. 반면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이며, 예수의 정체이며,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한 이유와 목적임을 반복적으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랑을 법적, 윤리적, 실천적인 영역에서 파악했고, 요한만이 사랑을 상징적이고, 관계적이고, 존재론적인 핵심으로 확신했다.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실제 피드백 내용이다. 강의를 하고 나서 한 참석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이들에게 ‘맨날 사랑이야. 또 사랑 타령하네.’ 내가 그랬었다. 지금도 그렇다. 모든 것이 사랑은 아니다. 그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사랑이 다이다. 다음 책 제목은 『사랑은이』가 아니라, 『사랑이다』. Not everything is love. However, for me love is everything.

21 그리스어 ἰδιος(idios): 자신의, 개인적인, 독특한. 자기의 것을 만들다의 뜻.

‘어렵다. 잠깐 판생각하면 못 쫓아간다. 쉽게 좀 강의하면 좋겠다.’ 내가 자주 들었던 또 다른 평가였다. 예수가 이 땅에서 스피치를 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것도 제자들에게서.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요한의 복음서에 종종 나오는 반응이었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이 들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둘 중 하나였다. 이관자들의 바라봄에는 새로움과 진실함과 창조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바라봄은 봄 없이 바라기만 하는 이들에게는 거부감이 들게 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귀찮은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되지도 않는 소리이다. 자신에게 필요해도 저자가 싫어지는 이유가 될 뿐이다. 쳐다보기만 해도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한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있다. 영화나 중국 사극에서 보면 동일 사건인데도 그 해석이 달라 편이 나뉘고 서로 갈등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사건 자료는 다르지 않는데 사건 담당자의 개인의 성향, 관점, 배경, 관계, 신념에 따라 자료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요한은 개인적으로 깊은 사색의 사람이었다.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요 13:23)’이었다. 이는 그의 성향이 예수와 잘

어우러졌음을 보여준다. 내적이고 묵상적인 면모를 지닌 성향의 요한. 이러하다 보니 요한은 사건 자체보다는 그 의미와 본질을 깊이 파고드는 쪽으로 마음이 향했다.

또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위와 아래 같은 상징적 대조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단순한 논리보다 분명한 영적 차이와 상징을 선호하는 사상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수와의 관계에서도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의 현장에 깊이 관여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사건보다 예수의 존재 자체를 중요시하게 했다. 시대적으로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영지주의²²와 그리스 철학(특히 로고스 사상)을 이단 heresy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선별, 활용했다. 심지어 요한은 로고스 개념을 수용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 λόγος는 우주의 질서-이성-중재 원리이었다. 요한은 이 개념을 차용하여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라고 시작하며, 로고스를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다리 역할이 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요한의 신학은 관계적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사랑과 연합에 집중한다(포도나무

22 영지주의Gnosticism: 초기 기독교와 같은 시기에 등장. 구원은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영적 지식gnosis을 깨닫는 데서 온다고 주장.

와 가지 비유). 요한의 사상은 윤리적 계명이나 율법적 설명이 중심인 공관복음과 다르게 존재론적, 관계론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요한은 상징과 영적 해석 즉 물, 빛, 떡, 포도주, 포도나무 같은 일상의 사물들을 사용하여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볼 때 요한은 초인지 사상가hyper-cognitive thinker였다.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높고, 다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 전통과 관습, 다수의 평가나 이해를 그대로 기록한 이가 아니라, 자기 신학을 가지고 해석하고 표현한 고유한 인물이었다.

대중 앞에 서고 강의와 연설을 했다.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스스로 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일을 수행했다. 조직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공사를 일으키고 완공하고 그렇게 일했다. 여러 나라 역사 깊은 학문의 공간들에서 책들을 읽고 페이퍼를 쓰고 나중에는 나의 책도 지어냈다. 학위들도 단순한 종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내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발전시킨 징표로 주어졌다. 자작곡들로 음반도 내 보았다. 비행기 조종사 자격도 갖게 되었다. 한때 한동안 비행을 참 즐겼었다. 좋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늘 곁에 함께했다.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행복과 즐거움은 평생을 말해도 다함이 없는 분량이다. 감사하고 감사해도 수數와 양量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 그럼에도 누군가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지난날의 어떤 순간이 참 은

혜의 순간으로 자연스레 충만하게 가슴에서 튀어나오는가?’
 답은 이렇다. ‘깊이 진정으로 함께했던 사랑의 순간들만이다.’
 삶 전체를 은혜와 호의 속에 in grace 살아왔다. 내 뼈에 새겨
 진 감사함의 사연들이 있다.

다만 나는 친밀관계지향자 intimacy-oriented person이다.
 요한이 예수 품에 안겨 있었듯, 예수가 요한을 늘 자신의
 곁으로 삼아 함께 있었듯, 나 역시 수량數量的의 관계나 인가
 認可²³의 필요가 없다. 나롭게 나로서 나대로 기뻐지고
 충만해지는 참 은혜의 순간은 친밀하게 나의 곁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다. 서로 다른 두 존재들이 기꺼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섞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순간들.

마지막으로 요한이 목격하고 해석한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을 하니까
 말이 어렵다고 하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요 6:60-66).
 유대인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뜻의 통함이 없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예수가 열두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다. ‘생명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23 인가認可(rènkě):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

요한이 볼 때 베드로의 이 대답은 뜻의 통함은 없지만 신실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 베드로의 결심이였다. 요한은 그 뜻을 예수와 같이 나누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기는 하지만, 후에 베드로는 예수의 예견대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 요한은 예수와 함께 있고 하나 되는 것이 그의 순전하고 충만한 기쁨이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요 6:56).’ 신의 은혜**Gratia Dei**는 생명을 지닌 모든 인간을 위한 은총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신과 하나됨과 그와 결 됄을 일상 순간마다 함께 기뻐함**congratulate**²⁴으로 이 땅 일상천상日常天上의 존재가 된다.

우리 서로 나누

그 &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시 찾아냈다! Elle est retrouvée!

무엇을? 영원을! Quoi? L'Éternité.

24 congratulate: 라틴어 con: 함께 · gratul: 은혜, 호의, 축복, 즐거움 · -ate: 동사형 어미, ~하다.

나는 나의 원형을 파악하고 또한 그것이
드러나 있음을 인정하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림자들의 실체는 나임을 알고
그들과 작용-반작용하며 내 삶을 창조할 것이다.

- 01 야곱 유형 신神의 나라
- 02 다윗 유형 신神의 마음
- 03 솔로몬 유형 신神의 지혜
- 04 요한 유형 신神의 총애

나의 원형들

原 型